“맛있게 드시고 부처님 가피도 받아 가세요”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다나 회장 탄경 스님과 쪽방촌도우미봉사회 회장 김윤석 경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다나, 5월 9일 영등포 쪽방촌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자비 실천
영양식 공양 · 물품 선물 이어
연등 전달하며 취약계층 위로

“영양식 맛있게 드시고 부처님 가피도 함께 받아 가세요.”

국그릇과 밥공기가 가득 올려진 쟁반을 번쩍 들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직접 나눠주던 탄경 스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잠시도 쉴 틈이 없을 만큼 정신없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사단법인 다나(회장 탄경 스님)는 5월 9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쪽방도우미봉사회(회장 김윤석)와 함께 ‘쪽방주민 부처님오신날 영양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평소 이곳에서는 쪽방도우미봉사단이 매주 목요일 점심마다 국수 공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코앞에 둔 만큼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이날 만큼은 불교계가 후원에 나섰다. 다나와 함께 조계종, 한마음선원, 불국사, 달마사 등 사찰들이 후원한 덕분에 쪽방촌 어르신들은 다가올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영양식을 넉넉히 공양할 수 있었다.

이날 영양식 공양을 받은 어르신들도 입을 모아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 어르신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준비해 주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나눈 탄경 스님은 곧 자리를 옮겨 선물을 실은 트럭 옆에 섰다. 마스크, 관절약, 컵라면 등으로 구성된 생활물품선물 600개가 어르신들에게 전해졌다. 이날은 특히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쪽방도우미봉사단이 직접 만든 연등도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스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에 선물을 나눠주면서도 질서를 지키지 않은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단호함을 보이며 질서를 바로잡았다. 탄경 스님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어르신들의 심성이 악한 것이 아니다. 모두 절박한 심정이다 보니 마음이 앞서는 것”이라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이따금씩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비된 선물이 동이 나는 데는 불과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봉사활동이 마무리될 무렵에서야 한숨 돌린 탄경 스님은 그동안 봉사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술회했다. 스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절박함”이라며 “우리 근처에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은데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했던 탄경 스님은 “취약계층의 삶과 자원봉사자들의 고생을 보면 볼수록 수행자로서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법을 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중생들의 고통 구제가 선행 돼야 한다. 오늘 나눈 영양식 한 그릇이 모두 전법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쪽방도우미봉사회를 창단하고 30년 동안 이끌고있는 김윤석 마포경찰서 경감은 어느덧 정년을 두 달 앞두고 있었다. 90년대 상암 소년촌 고아원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김 경감은 “내가 조금 고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만한 보람도 없다”며 “정년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함산 산사태에 ‘세계유산 석굴암’ 위험

녹색연합 “시한폭탄 안은 상황”
불국사도 초기 위협 징후 진행
정부 “7억 투입…장마 전 완료”


토함산 석굴암 150m 상단 산사태 발생 현장. 녹색연합 제공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해 문화재 보호에 주의가 요망된다. 녹색연합은 5월 13일 ‘경주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연합이 현장 조사와 드론 촬영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는 해발 400~700m 사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산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토양과 구곡 침식이 보이는 곳도 5개소 이상이다. 피해를 입은 훼손 현장은 토양 봉락, 침식, 낙석, 수목 전도 등 산사태의 여러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산사태로 위험은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도 피해갈 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굴암 위쪽도 산사태가 2개소 발생한 상태로, 현재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에 흙과 암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녹색연합은 보고서에서 “큰 비가 내리거나 지진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굴암의 산사태 위험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석굴암 입구 주차장 2개소도 산사태 현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가 복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차장 주변의 산사태는 22년 9월 발생했지만 복구는 커녕 2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 녹색연합은 “산사태가 발생한 주차장 옆 카페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아래에 참샘골이 있고 그 밑에 범곡리 마을이 있어 산사태 피해가 마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구가 시급하다”면서 “세계유산과 국보 등 문화유산이라고 피해가 제외되지 않는다. 폭우와 강우 때 탐방객의 통제는 물론, 스님과 사찰 관리인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피체계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또 “불국사 역시 경내를 위협하는 산사태 초기 징후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큰 비가 오면 불국사 경내로 이어지는 계곡으로 토사가 쓸려 내려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국가유산청은 5월 13일 “경주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석굴암 배면 북서측과 주차장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협의해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원을 투입했다”면서 “낙석방지방 설치 등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장마기 이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케밥·빠에야 보다 사찰음식이 더 맛나요”

5월 19일, ‘성북세계음식축제’서
사찰음식, 한국대표음식으로 참여
뻥튀기 용기로 쓰레기 최소화도

“빠에야(스페인 대표 음식)와 케밥(튀르키예 대표 음식) 맛보러 왔다가 사찰음식에 푹 빠졌어요!”

5월 19일 서울 성북구 성북로 일대에서 개최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에서 사찰음식을 맛본 시민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원더풀”이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성북로에 모인 시민들은 사찰음식을 한입 먹어보고 “왜 사찰음식이 한국 대표 음식으로 축제에 참가하게 됐는지 이해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해마다 약 5만명이 방문하는 서울 대표 축제다. 각 나라 대사관 요리사 선보이는 ‘세계음식요리사’ 부스를 돌며 세계 미식여행을 성북동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입소문이 났다.

행사에는 ‘모두가 살아가는 맛’을 슬로건으로 4대륙 19개국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사찰음식이 세계 대표음식들과 어깨를 당당히 해 눈길을 끌었다.

2개 부스로 마련된 사찰음식 코너는 성북구사암연합회의 주도로 오이만두, 나물전, 청국장김말이, 버섯양념튀김, 가지새싹 말이, 연입밥 등이 선보였다. 게다가 뻥튀기 용기를 활용해 일회용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사찰음식을 맛본 시민들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북동 주민 한선희 씨는 “여러나라의 부스를 찬찬히 살펴 보고 정갈한 음식에 눈길이 가 사찰음식을 선택했다”면서 “과하지 않은 양념에도 훌륭한 맛을 내는 것이 신기해 스님들에게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5월 19일 개최된 성북세계음식축제에 동참한 사찰음식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찰음식의 정갈함은 외국인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왔다. 미국인 지나 씨는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모든 생명의 조화와 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겼다는 사찰음식의 소개가 인상 깊다”면서 “특히 뻥튀기를 용기를 활용, 축제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나 나오지 않은 것은 불교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인 헤이케 씨는 “신선한 재료들에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것이 놀랍다”면서 “한국 음식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 사찰음식도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월암 주지 혜범 스님은 “선도적으로 다회용기를 도입, 방문객에게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누리마실의 지향점을 적극 응원하는 마음에서 음식을 구성했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많은 이가 전통사찰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해 기쁘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 땅 민주화 이뤄낸 5 · 18 정신 우리가 잇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와 광주 5 · 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5월 17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광주 5 · 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는 동시에 민주와 정의, 인권 등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김내영 기자

